

김제 헬기 추락원인 기체결합 부각

기상상태 양호·40년 경력 조종사 등 감안할 때

정부가 김제 금산사 인근 야산에 추락한 헬기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나선 가운데 기체 결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을 현장에 급파해 기체 잔해 등을 수집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1일 김포공항에 있는 잔해보관소로 헬기 잔해 등을 옮기고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고헬기에 블랙박스 없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고 당시 가시거리는 13.8km로 기상상태는 양호한 수준이었고, 사고 헬기도 생산된 지 10년이 안된 비교적 최신기종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숨진 기장 김모(61)씨도 4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로, 운항미숙이나 기상악화보다는 기체 결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헬기 추락사고 목격자들이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3분 가량 상공을 방빙 돌았다"고 진술. 헬기 꼬리날개(Tail Rotor) 결합에 의한 사

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헬기가 방빙 도는 현상은 꼬리로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항공대에 따르면 헬기의 주 날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동체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꼬리 날개가 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꼬리날개가 헬기 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중심을 잡지 못해 방빙 돌게 된다. 꼬리 날개가 기능을 못해 헬기가 방빙 돌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조종사가 헬기 조종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전북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꼬리날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방빙도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고도가 높은 5000피트(1524미터) 상공에서는 조치할 수는 있지만 착륙하기 위해 고도가 낮은 상황에서 꼬리날개에 고장이 있다면 조종사가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8분께 김제시 금산면 모악랜드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해 혼자 탑승하고 있던 기장 김씨가 숨졌다. 사고헬기는 독일에서 생산한 'BO 105' 기종으로 세진항공 소속이며, 전라북도가 산발 감시와 진화 등을 위해 일부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박용주기자

전주시, 19일까지 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 참여 모집

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2016년도 감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이하 성장사다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성장사다리사업에 총 3억 원(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을 투입, 총 48개 기업에 대해 시제품제작과 생산기반 공정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관내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지원 분야는 △기술혁신 R&D 시제품제작지원(신규) △생산기반 공정개선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특(이)업종 융합산업 포럼(신규) 등이다. 우선, 올해 신규사업인 R&D 시제품제작지원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R&D 역량과 시제품제작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술마케팅지원실(063-219-36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기차선로 전선 훑친 50대 '덜미'

익산경찰서는 1일 기차선로에서 구리 집지전선 등을 절단해 훑친 혐의(절도)로 안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3월 30부터 올 1월 21일까지 익산역과 삼례역 사이 기차선로 등에서 낚여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집지전선 등을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 2300만원 상당을 훑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노영 기자



추울수록 더 따뜻한

사람의 온도탑이 100.5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이 목표액(3430억원)보다 16억원 더 많은 3446억원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 거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1일 모악홀에서 개원 10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강명재 병원장을 비롯해 서정환 진료처장, 정연준 기획조정실장 등 운영위원과 보직자,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명재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병원 개원 107주년을 맞아 지역 보건

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공헌한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직원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인프라를 밑거름 삼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고 안전한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높아지는 의료수준에 대한 기대와 공감자에 대한 불리한 의료정책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료환경과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도내 환자의 타지역 유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27명의 의료진과 직원에 대한 우수·모범직원 표창을 비롯해 2명의 협력업체 우수직원 표창, 모범자원봉사자 감사장, 친절직원 표창 등의 수상식이 진행됐다.

/박용주기자

전주시, 4월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주시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오는 13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외국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업무나 여행, 학업 등의 목적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이다.

국외부재자 신고자들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해당 방문지역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국의 부재자 신고는 거주하고 있는 현지 공관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안산구 wansan5279@korea.kr, 덕진구 deokjingu@korea.kr), 우편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http://ov.nec.gov.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의 편의성도 높였다.

/김영재기자

고광훈 고용부 전주지청장 취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으로 1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시설계장이 취임했다.

신임 고광훈 전주지청장은 안양지청 산업안전과장, 경력고용센터 소장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시설계장을 역

임했다.

고광훈 지청장은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확립과 근로자 재해예방,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고용노동행정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전북경찰 성과홍보 대형 걸개 '눈길'

4대 사회적 근절·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등

전북지방경찰청이 대형 홍보걸개가 걸어 지나가는 도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청 외벽에 지난달 29일부터 내걸린 2015년 전북경찰 성과 라는 제목의 걸개는 지난해 전북경찰이 이룩한 치안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청은 아동학대 사전대응 시스템을 구축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전수조사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정과제인 4대 사회적 근절을 선도해 경찰청에서 평가하는 4대 사회적 근절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5대범죄 검거율(84.9%)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찰청의 5대 핵심 지표(112현장검거율, 교통사망사고 포함) 가운데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특히 전북경찰은 지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치안고객만족도(78.6점)와 체감안전도(70.0점) 부문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전북경찰은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법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돈선거' '혹색선전'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반드시 적절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품살포와 향음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증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살포는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혹색선전 행위도 범법행위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선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선거사법 신고센터는 713-0269, 또는 112를 통해 24시간 제보를 받는다.

/박용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